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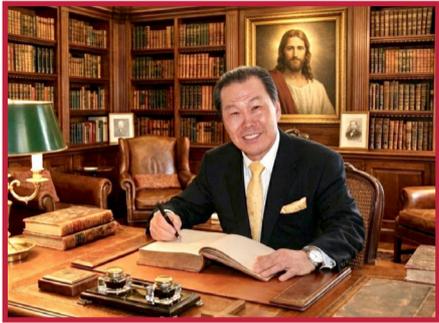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3월 22일 (제 1350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 AI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라디오와 TV가 등장했을 때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신용카드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것들과 마주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잘 활용하며 살고 있다. AI를 대하는 우리의 심정이 이와 같다. 더욱이 교회와 AI는 함께 가도 되는 동지인지, 아니면 배척하고 가야 하는 적인지 가늠하기 어렵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AI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AI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배척도 하지 말라. 그것은 똑똑한 도구이다.”

그렇다. 도구를 잘 활용하면 일이 쉽고, 일의 진척이 빠르다. 호미로 일하는 것보다 곡괭이가 낫고, 곡괭이보다 포크레인이 나은 것처럼. 손에 핸드폰이 들리니 만사가 편한 것처럼, AI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도구를 잘못 쓰면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생명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요리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흉기도 될 수 있다. 즉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I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나는 내 설교를 AI를 활용하여 각 나라 언어로 더빙해서 유튜브에 올린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 AI를 이용하여 설교자료를 정리하고, 성경 연구를 돕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고,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데 유용하게 쓰면 된다.

그러나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은 AI가 대신 기도할 수 없고, AI가 대신 찬양할 수 없고, AI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기에 그렇다. 목사가 전적으로 AI에 의존하여 설교하면 성도들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 자리에 AI가 떡 앉아 있을 터이다.

결론이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들고, 지혜롭게 도구를 사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것 아닐까.

## 제24회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졸업예배

지난 3월 11일, 제24회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졸업예배가 KBS88체육관에서 수요일예배 시간에 거행되었다.

사역의 길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향해 이사장이신 이초석 목사님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 프로 정신’과 ‘작은 일에 충성’을 화두로 던지시며,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목자의 길을 제시하셨다.

“성공한 농부는 전답을 탓하지 않습니다. 밭이 거칠면 돌을 골라내고 기름진 거름을 주어 옥토로 만듭니다. 성공한 기업 역시 고객을 탓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진실하면 고객은 산 넘고 물 건너서라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목회도 이와 같습니다. 성공한 목자는 결코 초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남들이 보지 않는 사소한 업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자가 결국 큰일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작은 물질에 흔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충성(忠誠)은 오직 마음의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의 그 뜨거움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 목사님은 사역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인간의 꾀’를 지적하셨다. “인간의 꾀와 수단, 방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많은

니다. 평소 4시간, 집회 땀 7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기도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능력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서 무슨 권세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겠습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히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으로 본을 보이십시오. 말재주나 지식으로 성도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정직함과 충성됨으로 성도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던지십시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 학장이신 이시대 목사님은 권구배 생도를 비롯한 27명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수석



예수중심제자신학원 교수진 및 제24회 졸업생 일동

장에 풀이 없으면 심고, 물이 없으면 깊이 파야 합니다. 물을 길어서라도 양떼의 배를 불러야 합니다. 초장이 나빠서 양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목자로서 실력 없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양 떼는 목자가 준비한 영적 양식의 품질을 보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

이초석 목사님은 목회 성공의 비결로 ‘진실’과 ‘충성’을 꼽으셨다. 특히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됬됨이를 강조하며 사역자의 태도를 점검하셨다.

“여러분, 목회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되고 충성된 자와 일하십시오.

이들이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을 말하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 인간적인 술수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나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진실이 결핍된 목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영적인 풍량이 불어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나에게 진실하고 남에게 정직하십시오.”

또한 목사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권세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기도의 씨름에서 나온다고 권면하셨다.

“나는 41년 사역 동안 하루 4시간 자고 남은 시간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왔습

을 차지한 송현혜, 김혜리, 전혜리 생도가 이사장상을 수여했고, 차석을 차지한 최마리아, 이에랑, 양은정 생도에게는 학장상이 수여되었으며, 신학교 4년 내내 뒤에서 영상 및 미디어로 봉사한 이은성 생도에게는 봉사상이 수여되었다.

이날 배출된 27명의 사역자가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 세계를 누비며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의 교가처럼, 예수님의 영광 위해 부름 받은 졸업생들이 주님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4년간 수고하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전합니다. 문천명 전도사



수석졸업 송현혜



봉사상 이은성



차석졸업 최마리아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4:14~21)



# 우리, 예수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자

남태평양 참치잡이 원양어선의 기관장 문경연 장로가 저에게 전화로 한 말입니다. “목사님, 망망대해에서는 몰아치는 폭풍이나 집체만 한 파도가 가장 무서운 적일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배의 엔진이 꺼지는 일입니다. 엔진만 멀쩡하면 어떻게든 키를 조절해서 폭풍이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엔진이 꺼져버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배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기대할 게 없다

사람들은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가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파도처럼 다가오는 문제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삶의 엔진이 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배가 엔진만 살아 있으면 집체만 한 파도나 해일도 이겨낼 수 있지만, 엔진이 멈춰버리면 파도나 해일에 휘말려 좌초당할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큰 문제가 들이닥쳐도 성경만 소멸하지 않았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은 감당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영이기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장로가 바다에 치는 그물은 반경이 거의 4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물에 한 번 잡히는 고기의 양이 자그마치 450t가량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의 반경은 이보다 훨씬 큼니다. 우주를 초월합니다. 고로 성경을 통해 얻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엔진을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형어선이라고 해도,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엔진이 꺼지면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다 파도나 해일에 휩쓸려 전복되고 말지요. 우리 삶의 엔진인 성경을 소멸하면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에 휩쓸려 삶이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경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성경을 보내주셨습니다(요16:7). 예수 이름으로 온 성경은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요14:18).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장래를 알게 하며(요16:13),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고전

2:10). 또한 성경이 임하면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무기와 연장과 같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요14:12).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임한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행2:38).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가난과 병과 저주를 끼고 삽니다. 문제에 휩쓸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삽니다. 곧 전복될 위기 속에서 헉헉거리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엔

진을 꺼트려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이

그렇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고

당부하셨는데, 엔진을 꺼트려서 파도와 해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을 소멸해서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속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피로 구원하셨고, 당신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내사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령만 소멸치 말라. 성경을 소멸치 않으면 만사형통이다.’라고 당부하셨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난에 찌들고, 병들어 아프고, 파산하고, 문제 속에 사는 것을 보면 저도 속이 체한 듯 답답한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연장을 쫓는데, 무기를 쫓는데, 돈을 쫓는데 방치하다가 빼앗긴 격이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안 써서 녹이 슨 격이니 속이 터지실 겁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No, 바로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일이 안 되

면, 문제가 생기면, 병들면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엔진을 꺼트린 본인을 탓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도 성경의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도 성경을 받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경을 받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나가서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노리겠고, 무엇이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무엇 이 우리

리

앞길을 막고 방해하겠습니까? 엔진만 살아 있다면 그 너른 바다의 물고기

가 다 내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충만을 입으면 권능이 따르니 무엇을 명하는 그대로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엔진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 성경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1:35), 낮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셨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우리도 기도의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서 은밀히 기도하고(마6:6), 부르짖어 기도하고(렘33:3),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마18:19). 또 눈물로 기도하고(시126:5), 감사로 기도하고(빌4:6),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기도 해야 합니다(고전14:2). 그래야 엔진이 안 꺼집니다. 그래야 성경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

셨거든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 기도하는 것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일진대(살전5:18),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고 어찌 살아남고, 어찌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고통과 저주에서, 병과 가난에서 해방시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내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시107:19~20). 예레미야서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다른 거 다 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삶의 1순위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메추라기를 잡아봐야 얼마나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흥해를 가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도 기도가 어렵고, 힘들습니까?

마귀와 귀신이 무서워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 했고,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26:41)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제발 빈 총 가지고, 녹슨 총 가지고, 빈 지갑 가지고 품잡지 마세요. 절대 귀신이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특권, 권능을 가지세요.

### 연장 없이 일할 수 없고 무기 없이 승리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잘되었다고, 병이 나았다고, 목표한 바를 이뤘다고 저에게 와서 얘기하면 저는 진짜 밥 안 먹어도 배 부릅니다. 막혔던 속이 뽕 풀립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면 우리 주님의 속이 뽕 풀립니다. 주님 속 좀 시원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로 성경충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삶이 표류하고 있습니까? 전복될 위기입니까? 기도하십시오. SOS를 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려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고, 위경에서 건지실 겁니다. 만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소멸치 마십시오. 심령이 살아야 삶이 살아나니까요.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 부지런함이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쁘다’는 말은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누군가 근황을 물을 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답해야 비로소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과 세상이 말하는 ‘바쁨’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부지런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서구 속담에 “게으른 자는 석양에 바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낮시간을 허비하고 마감 시간이 닥쳐서야 허둥대는 모습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오히려 미루는 습관과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부지런함은 단순히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동작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선순위를 지켜내는 ‘영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할지라도 정작 자신이 맡은 본연의 사명은 등한시한 채 영동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의 본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팔방미인이 밥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는 것은 많으나 정작 깊이가 없는 상태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불필요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자 힘씁니다. 환경을 탓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파 내려가는 영적 끈기가 필요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시도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로 시작하는 양사언의 시조는 게으른 자의 심성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산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르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안 될 이유와 핑계를 찾는 데 골몰하지만 부지런한 신앙인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방법을 찾습니다. 참된 부지런함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를 가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절반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바람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상화평 목사

:: 신앙논객 ::

# 맛집의 진면목(眞面目)

11월에 있었던 신학교 졸업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대여할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서울 서대문구 쪽에 있는 대학가를 방문하였다. 필자가 대학생 시절 많이 다녔던 곳이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대학부체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골목에 진입했는데 웬걸, 오고 가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골목은 ‘입대’ 딱지가 붙은 채 오랜 시간 방치된 상가들만 흉흉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필자가 잠깐 주차했던 주상복합 건물은 건물 내에 제대로 운영되는 가게 하나 없이 주차장만 운영될 뿐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젊음의 거리이자 최신 유행 트렌드의 발상지로 이름을 날렸던 곳인데, 코로나19 사태와 인근에 다른 경쟁상권이 발전하면서 이런 형국이 된 것이다. 씩씩한 마음과 함께 강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었다. 바로 영원한 대목은 없다는 것. 어쩌면 그 골목의 몰락 원인은 코로나19 같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역세권이자 대학 상권이니까 무조건 장사가 잘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수많은 식당과 카페들이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여파를 헤치

고 살아남은 가게들이 분명히 있다. 주변에서 아무리 새로운 가게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것을 거듭해도 오히려 계속 한 자리를 지키며 문전성시를 이어가는 가게들도 있다. 오히려 어떤 집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오고 주변에 죽어가던 상권을 끌어올리거나 심지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기까지 한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실력과 내공을 갖춘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법이다. 사람도, 기업도, 국가도, 그리고 교회도 흔들려 보면 그들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성공한 농부는 초장(草場)타를 하지 않는다!” 지난 4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정신으로 숭한 평지풍파를 헤치면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도, 목사님께서 세계로 다니셔도 오히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영적 맛집’이 된 것 아니겠는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과 내가 서 있는 땅의 가치를 높여서, 위기 때 몰락하는 상권이 아닌, 일부러 찾아오는 맛집이 되자.

신혁주 전도사

#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

“우리 바깥양반이 계단에서 떨어졌디아. 평안히 가게 전도사님이 기도 좀 해줘” 목회자 세미나 직후 갑작스럽게 걸려 온 권사님의 전화였다. 남편 집사님은 신앙의 연수가 무색하게 구령의 확신이 없으셨다. “죽어 봐야 알지, 나는 그전에는 못 믿어요.”라고 하시며, 나와 권사님을 속대웠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 면회도 불가능한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가 되셨다.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있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뜻을 구원하신 하나님, 집사님께서 지난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지내셨지만, 이제라도 저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은혜로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후 금식 중 들던 설교에서, “그 영혼을

위해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왜 그 영혼을 구원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구령의 열정을 기다리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집사님이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는 소식이였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애통함을 들으심에 감사와 전율이 밀려왔다. 집사님을 찾아뵈었을 때는 말씀도 못 하실 만큼 아위셨지만, 나를 보시자 눈물을 흘리며 알아보셨다. 영접기도를 할 때는 정확한 발음이 어려워 눈 깜빡임으로 재차 확인하며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집사님께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기도한다. 남은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다가,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김해리 교육전도사



:: 생명의 말씀 ::

# 십자가 없는 영광

최근 들어 문을 닫거나 통폐합하는 신학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해서 나타나는 이런 기현상이 한국에도 예외 없이 도미노처럼 속출하고 있다. 국내 오랜 전통의 신학교(신학대학원)들에서도 정원 미달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한때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하려는 재수, 삼수생들을 위한 신학대학원 입시학원까지 운영할 정도로 그 문턱은 높았고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이한 감소 현상 앞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목회자들을 과잉생산하더니 결국 드러나야 할 부작용이 드러났다는 부정적인 비판과 아울러, 드디어 거품이 빠지고 신학교라는 곳이 이제 본질적인 제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안도 섞인 평가도 있다. 이런 감소 현상은 신학교만의 단독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유이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교회 신도 수의 감소도 자연스런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유아 인구의 감소와 청소년층의 기독교인구가 점점 감소하니, 당연히 신학생이라는 신분은 희귀한 직종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제 신학생이 되어 목회자가 되는 길

이 여러 직업군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명확한 사명의식 없이는 안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사명의식에 더해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바른 신학의 가르침이 있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도 십자가 없는 구원의 넓은 길을 가르치니 신학교에 굳이 다녀야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투철한 사명의식과 바른 신학교육으로 무장하여 경건의 훈련을 받는 대가가 필요하다. 대가가 큰 만큼, 영광의 상급도 크니 말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매일 요구하신다(눅9:23).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라는 과정 없이 쉽게 가시도록 권유하다가 큰 꾸지람을 들었다(마16:23). 십자가는 한 방의 기회가 아니라 ‘과정(스토리)’이 있는 사역이다.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의 신학생들 27명이 졸업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신학원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십자가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역지에서 이 정신으로 대가를 치러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아야겠다.

송직화 목사

